



광주시립민속박물관 역사관 건립 계획 국비 미확보로 좌초

‘유물·전시계획 미흡’ 문광부 공모 탈락... 내년 재신청 추진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등 ‘박물관 리모델링 위한 꿈속 콘텐츠 구성 등 원점 재검토’

광주시립민속박물관(이하 민속박물관)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광주역사관’(가칭) 건립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탈락하며 제동이 걸렸다.

광주시립민속박물관은 올해 초 문체부에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등 ‘광주시립미술관 리모델링 및 광주역사관 구축사업’이 유물·전시계획 미흡 등으로 지난 5월 ‘미 통과’ 결정됐다고 3일 밝혔다.

1987년 11월 개관한 민속박물관은 약 30년 간 리모델링 없이 똑같은 콘텐츠를 전시해 시설 노후화와 함께 식상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이에 지난해 3월 윤장현 시장은 리모델링 방침을 밝혔고 민속박물관은 ‘시립민

속박물관 리모델링 및 광주역사 전시공간 구축 계획(안)을 세워 추진했다. 이에 문체부를 광주역사관으로 바꾸고 민속박물관 리모델링과 함께 광주 정체성을 보여주는 공간을 만든다는 방침이었다.

계획안에 따르면 1층(1230㎡)은 유물 1200점을 7개 소주제로 나눠 고대부터 최근까지 광주 역사를 소개하는 공간이다. 2층(1460㎡)은 자료 1000점을 이용해 호남 예술, 문화, 음식, 지리 등을 알려준다. 3년간 94억원(국비 38억원·시비 56억원)을 투입, 내년부터 예산 확보·설계에 들어가 2018년 재개관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비 확보가 실패함에 따라 전면 백지화 위기에 처했다.

주인택 관장은 “박물관은 원래 10년에 한번씩 리모델링을 해줘야 하지만 민속박물관은 19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했음에도 예산 문제 등으로 30년간 못하고 있었다”며 “미흡한 점을 보강해 내년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문체부 탈락을 계기로 전시 콘텐츠 구성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호남사학회, 광주문화도시협의회,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등 3개 시민단체는 3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민·관·전문가가 참여하는 광주역사박물관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단체는 광주시(민속박물관)가 기존 방식으로 문체부에 재신청 한다는 계획에 우려를 나타내며 폭넓은 의견 수렴, 토론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 5월 탈락이 결정됐음에도 두 달이 지난 현재 이 상황을 밝힌 점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광주시는 이미 5월에 문체부 결정 내용을 통지 받았지만 두 달 가까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는 지금도 광주역사관 구축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

진되고 있는지 알고 있는 지역사회를 기만 한 것으로 광주시의 꿈·무늬·폐쇄 행정의 전형적인 사례다”고 언급했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광주시가 민속박물관을 리모델링하기 위한 구설로 광주역사관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관계자는 “광주역사관은 민속박물관 리모델링 만으로 국비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붙여 놓은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며 “광주시는 도시 문화와 역사를 상징하는 공간인 만큼 민속박물관 측에 모든 것을 맡길 것이 아니라 전면에서 나서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광주시는 역사박물관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고심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고 혹평하며 전문가·시민단체·광주시가 참여하는 정책감반회 등을 개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서암문화재단·전남대 호남학연구원 호남 전통예술 진단 공동 학술대회

내일 문화전당 극장3

지난 2010년 첫발을 댄 서암문화재단(이사장 권영열 화천그룹회장)은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고(故) 서암 권승관 화천그룹 창업회장의 뜻을 이어받기 위해 설립한 후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왔다.

올해 6회를 맞는 서암전통문화대상(상금 3000만원) 시상을 필두로 장학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대규모 국악공연을 열기도 했다.

올해는 전남대 호남학연구원(원장 조윤호 철학과 교수)과 함께 호남 전통예술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는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두 단체는 오는 5일(오후 2시) 아시아문화전당 극장3에서 ‘호남의 전통 예술,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연다. 판소리·화화·공예의 현주소를 조명하고, 전통예술 자원 발굴과 창조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정병헌(숙명여대) 교수가 호남 판소리의 역사적 전개와 위상을 평가하고, 이태호(명지대) 교수는 20세기 전남 광주·전남 지역 서화가들의 작품 활동과 의미를 짚어본다. 이어 최광호(한국전통문화대) 교수가 호남의 공예 전통과 지역 문화 현저화 방안을 논의하며, 임영규(전라남도 문화예술정책 자문위원회) 위원은 정부 및 지자체의 전통예술에 대한 지원정책 등을 살핀다.

이흥재(추계예술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서는 주제발표자들과 이영배(안동대), 이선욱(전남대), 김철우(전남대), 김기곤(광주전남연구원)씨가 참여한다. 주제발표에 앞서 국가지정무형문화재 제 5호 ‘적벽가’ 예능보유자 송순섭 명창의 판소리 공연이 펼쳐진다.

문의 062-530-0492.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클래식 영재 등용문’ 금호주니어콘서트

5일~8월 29일 금호아트홀 첫 주자 황윤미씨 등 15명 출연

클래식 영재들의 등용문인 금호주니어 콘서트가 오는 5일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시작된다.

오는 8월 29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콘서트에는 피아노·현악·관악·성악 등 4개 분야, 15명의 연주자가 참여한다. 연주자들은 지난 2월 실시된 금호주니어콘서트 오디션을 통해 선발됐다.

올해로 7회를 맞은 금호주니어콘서트는 만26세 이하 주니어 연주자들을 발굴, 데뷔무대를 마련해주는 프로그램이다.

5일 오후 7시30분 열리는 첫 공연은 플루티스트 황윤미씨가 장식한다. 레퍼토리는 도니체티의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카셀라의 ‘시칠리아와 버레스크’,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발라드’, 세르게이 프로코피예프 ‘플루트 소나타’ 등이다.

황씨는 전남예술고등학교와 송실대학

교 음악원을 졸업했으며 지난해 제17회 오사카 국제음악 콩쿠르에서 3위에 입상했다. 현재 한양대학교 음악대학원에 재학 중이다.

이어 7일에는 메조소프라노 정성희(목포대 대학원 재학)씨가 무대를 장식한다. 광주성악콩쿠르, 중앙음악콩쿠르 등에서 수상한 정씨는 생상의 오페라 ‘삼촌과 데릴라’, 조두남 곡 등을 들려준다.

그밖에 연주 일정은 다음과 같다. ▲19일=송유나(피아노·목포 향도초 6년) ▲21일=고우리(성악·전남대 음악학과 대학원) ▲27일=박가현(피아노·영산초6년) ▲28일=양진산(피아노·광주예고 3년) ▲8월3일=서혜원(성악·상명여대 교육대학원) ▲4일=백계준(피아노·전남대 음악학교 3년) ▲16일=김정우(피아노·광주 학교 2년) ▲18일=이승재(바이올린·전주예술중 1년) ▲22일=김진주(피아노·중앙대 피아노과 4년) ▲23일=박민(바이올린·광주송원중 2년) ▲24일=한수연(바이올린·볼로초 6년) ▲25일=양준혁(피아노·광주건국초 4년)



황윤미

다음 오디션은 2017년 2월 말로 예정됐다. 티켓 가격1만원.문의 062-360-843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남도 전통음식 일본 홋카이도서 맛본다

남도 전통음식이 일본 홋카이도에서 선보인다. (사)남도전통음식연구회는 5일부터 6일 북해도 삿포로 한국문화회관에서 남도 의례음식으로 일본 관광객을 만난다. 광주문화재단이 지원하는 한·일 문화예술교류지원사업의 하나다.

남도의례음식장 최영자 선생을 비롯해 모두 7명이 행사에 참여해 탄생, 혼인과 연관된 음식을 마련한다.

출생 전후 삼신상차림, 전통 혼례례 상차림 중 폐백, 성년례 계례상 등이 차려진다. 꽃강아지 등 현지인과 소통하는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남도전통음식연구회는 북해도문화재단 이소다 겐이치 이사장이 진행하고 있는 ‘나의 의자’ 프로젝트에 남도 의례음식을 결집하는 공동창작 작업에도 참여한다.

남도전통음식연구회는 지난 1999년 남도의례음식장 최영자 선생이 제자들과 함께 결성한 남도의례전통보존회로 출발, 남도음식의 맥을 잇고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윤영기자 penfoot@



여성독립운동가의 불꽃 삶... 오페라 ‘김락’

내일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경북 출신 여성독립운동가의 불꽃 같은 삶을 그린 오페라 ‘김락’이 광주 무대에 오른다.

경북도와 안동시가 주최하고 로얄 오페라단(단장 황해숙)이 주관하는 광복 71주년 기념 광복오페라 ‘김락’이 5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공연된다.

‘김락’은 3대 독립운동가 문중의 종부이자 독립운동가로 절곡의 삶을 살았던 김락을 주인공으로 한 창작오페라다. 치열한 독립투사의 삶을 산 김락의 이야기는 오페라 3막 속에 고스란히 담겼다. 제1막과 2막은 시아버지와 남편, 두 아들의 독립운동과 그에 따른 고통과 인내, 희생을 조명했고 제3막에서는 그들의 희생으로 광복을

맛이하는 환희를 그렸다.

이영기 로얄오페라단 예술감독이 총감독을 맡고, 최덕식이 음악감독을 맡았다. 진행감독은 영남에서는 김희영, 호남에서는 박미애가 맡았다. 여주인공 김락 역에는 소프라노 조옥희와 전성혜, 김락의 남편 이종업 역에는 바리톤 윤혁진, 시영민이 출연한다.

로얄오페라단은 2010년에 성주 출신의 심산 김창숙선생을 조명할 창작 오페라 ‘심산 김창숙’을 제작했고 2012년까지 서울과 대구, 안동, 영주, 성주 등지에서 공연했다.

2012년에는 사예 류성룡 선생을 조명할 창작오페라 ‘아! 징비록’을 제작해 2014년까지 서울과 대구, 안동, 김천 등에서 공연했고 제5회 대한민국 오페라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CGV광주용봉점 2층 상가매매

체육관련업종(에어로빅, 체육관, 당구장) 병원, 학원, 미용실, 골프 아카데미 등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 2건)
- 매 7억5천만원 (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CGV광주점 2층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분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화순 도곡 무인텔 매매

최근 올 리모델링 객실28개 최상의 입지 및 현 성업중

- 매23억 (근저당 14억5천만원), 실투자 8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상기 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구매조정이 가능합니다)

www.술향기맑은터.com

www.naver.com 술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술향기정식 & 돼지갈비
참숯구이 민물장어 예약
www.술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빠는날 화, 목, 토, 일 불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2인승, 25인승 무료이용 멸균작업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동,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참숯구이 민물장어와 숙지환 삼계탕을 개시합니다. 술향기정식, 돼지갈비, 참숯구이 민물장어, 숙지환삼계탕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참숯가마 찜질방 / 족욕탕 / 참숯구이 민물장어 & 돼지갈비 전문점 / 노래방 & 동전노래방